

도움을 받아 어렵게 스탈린을 키웠다.

이후 케테반은 스탈린을 주교로 만들기 위해 신학교에 보내려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베사리온에 의해 스탈린이 구두 공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베사리온은 집을 나가 떠돌다가 구두 공장에 취직했는데 아들도 같이 취직시켜 돈을 벌게할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신학교와 여러 고위 관료들이 도와줘 스탈린은 신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나머지 스탈린은 평생 아버지를 증오했고 훗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무덤을 갈아엎어버렸다.

어머니 '케테반 겔라제(ქეთევან გელაძე)'는 폭력적인 남편과는 반대로 매우 신실하고 자식에게 헌신적이며 따뜻한 어머니였다.

그래서 스탈린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 특히 나중에 서기장이 된 스탈린은 어머니를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고 경호원들까지 붙여 줄 정도로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어머니인 케테반은 어린 스탈린에게 초등교육을 받게하고, 신학교로 진학시켰다. 시작은 매우 좋았다.

그 시기 이오시프 스탈린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다. 당시 스탈린은 자신이 리더로서 애들을 이끌고 싶어 했고, 카리스마를 보여 12살에 18살 상급생을 부하로 거느리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을 끌어내 살인 협박도 할 수 있었다.